

리아호나

기도의 문 열기, 2쪽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궁금할 만한
네 가지 질문, 34쪽

몬슨 회장님에게 드리는 어린이들의
선물, 친4쪽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할 때, 거기에는 큰 권능이 따릅니다. 깊이 숙고한 뒤에 갖는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16쪽 참조



성인

제일회장단 메시지

2 그분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수 있도록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방문 교육 메시지

25 교육과 평생 학습을 추구하십시오

특집 기사

16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여러분의 영성을 높이고 싶습니까? 매일 아침 기도와 경전
공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소중하고도 경건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22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함: 믹스코 비에호의 전설
아담 시 올슨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대의 전설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26 산후 우울증 관리: 복음의 관점
린 클락 캘리스터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특집란

44 후기 성도의 소리
갑자기 가정 복음 교육을 열심히 하게 된 청소년, 오래된
성경책에서 찾은 아버지의 권고,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 힘과
위안을 찾음, 새로 일하게 된 직장에서 잃어버린 열쇠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기억에 남는 가정의 밤,
이번 호의 주제들

청소년

특집 기사

14 A학점보다 더 좋은 것 산다 스티븐스
내 어린 여동생은 영웅을 찾고 있다. 내가 그런 영웅이 되어 줄
시간이 있을까?

34 축복사의 축복은 언제쯤 받는 것이 좋을까요?
로버트 케이 웨그스타프
축복사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한 스테이크 축복사가 이를 설명한다.

37 너무 종교적이라고? 알 발 존슨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필요한 몇 가지
변화를 감수했다.

38 역할 모델 벤슨 이 미살루차 장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감을 주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간증이
강화되고 여러분은 순종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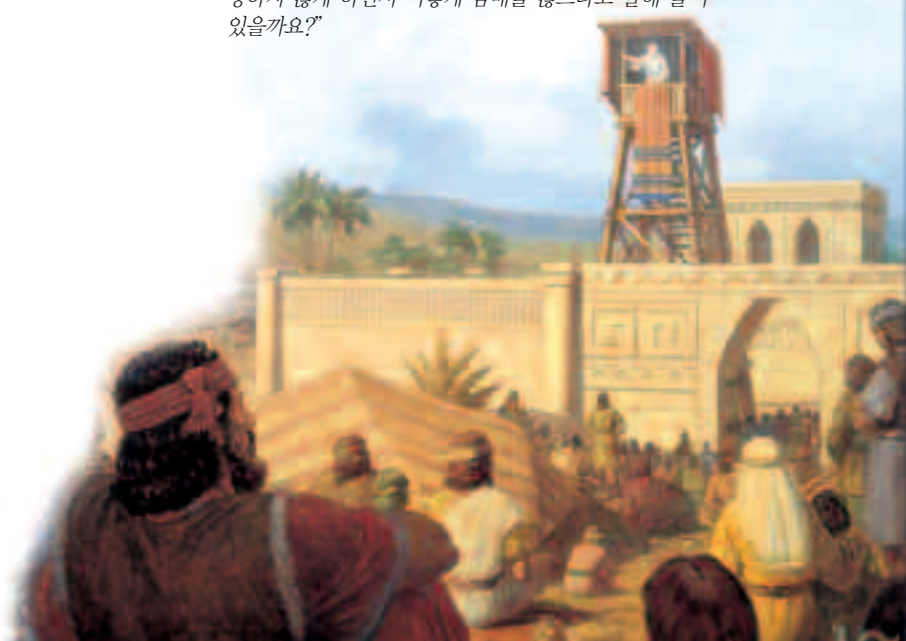
특집란

21 포스터: 지나치게 많은 정보?

32 질의응답
“제 친구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요?”

표지

앞: 사진 삽화: 데이브 스토커,
뒤: 교회 영화 회복의 한 장면,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엘스페스 영

“이 말씀들을 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 두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 주리라.”(고리와 성약 6:20)

2009년 8월호, 제46권, 제8호
리아호나 04288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이사시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케네스 존슨, 요시히코 기쿠찌, 더블유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통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트, 로버트 콘트, 캐리 캐스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파커, 채드 이 패리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제인 토마스, 폴 뮌덴버그, 줄리 위델

선임 비서: 로벨 투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킷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우, 콜레트 네베리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킴 핀스타머,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스킷트 엠 웨이,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18호, 제46권, 제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일: 정 동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광고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ugust 2009 Vol. 33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친4 **특집 기사**
생신 축하드려요, 몬슨 회장님!

친10 **제이슨의 대피** 캐롤린 리듀크

친6 **특집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일 할때도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친8 **함께 나누는 시간: 성전-엔젠가 갈 거야**
첼럴 에스플린

친13 **색칠하기**

친14 **친구 사귀기:**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리처드 엠 롬니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타갈로그어 정의만 반지를 찾아 보세요. 의를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해 보세요!

애독자 편지

이 잡지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일 년 전에 참례 받았습니니다. 선교사들을 제 집으로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전과 리아호나에 실리는 선지자의 가르침 덕분에 이 지상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전과 리아호나에 나오는 복음의 가르침들은 제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고, 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제 영을 살피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아호나를 읽기를 바랍니다. 이 잡지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스테파니 아코스타, 우루과이

저는 리아호나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특히 구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던 2008년 3월호는 제게 영감을 주었고, 그분에 대한 제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명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구주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네네사 시 이바네즈, 필리핀

구주께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의견이나 제안은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내용은 길이나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수 있도록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부 모든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인생에서 맞는 시련을 열렬한 기도를 통해 헤쳐 나가는 것을 보거나, 하나님께서 친절히 응답해 주셨다는 부모의 진실한 간증을 듣는 자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그 자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 가정과 가족을 떠나게 될 때, 부모는 자식들에게 보호의 방패막이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는 바로 그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이별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서로 만날 수 없음을 알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부친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시의 한 길거리 모퉁이에서 헤어졌습니다. 부친은 일 때문에 그곳에 오셨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제가 다시는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이었는데, 날씨는 화창했고, 거리는 차와 행인들로 붐볐습니다. 바로 그 모퉁이에 사방에서 오는 차를 몇 분 동안 멈추게 하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차가 줄지어 멈추었습니다. 수많은 행인이 대각선 방향을 비롯하여 각 방향으로 급히 교차로를 건넜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어 저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쯤에서 멈추어 섰는데, 제 옆으로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니 부친은 자리를 뜨지 않고 인파가 붐비는 길모퉁이에 그대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워 보였고, 조금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친에게 다시 가고 싶었지만 곧 신호가 바뀌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몸을 돌려 급히 길을 건넜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부친에게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친께서는 제가 그분의 표정을 잘못 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슬픈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불안해하며 확신을 얻으려는 어린 소년인 양 뒤돌아보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부친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그 아이를 충분히 가르쳤던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부친의 마음속에는 생각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친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친은 제가 보호받고 또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에 저는 항상 그분의 기도에서 그러한 염원을 듣고 느꼈으며, 제 어머니의 기도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배웠으며 또 기억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기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 그 이상의 훌륭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구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한 기도의 언어로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태복음 6:9) 저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하면 그 자녀의 기도가 어떤 해를 입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은 어린 자녀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태복음 6:12)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태복음 6:11) 저는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 우리는 위협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태복음 6:13)

저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들은 어떤 것들은 그러한 말이 형식적으로 하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해 동안 누워 계시던 침실 벽에는 구주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촌이자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인 새뮤얼 오 베니언 장로님(1874~1945)이 해 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 그림을 그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베니언 장로님은 어느 사도와 함께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도는 시험에서 구주를 보았던 일을 들려 주었습니다. 베니언 장로님은 그 그림이 주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 그것을 침대에서 볼 수 있는 벽에 걸어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주를 알고 계셨으며 또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로 다가갈 때 낯선 이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마치는 것이 아님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삶에서, 구주를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어머니의 노력의 세월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경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모사이야서 5:13)

부주의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됨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제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저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예레미야 31:33; 고린도후서 3:3; 히브리서 8:10; 10:16 참조)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회장님(1827~1901년)은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드렸던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신권 모임에 가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분이 설명하신 방법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임에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제 위에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제 마음에 기록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갑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견해와 상관없이 미리 준비하고 또 이미 결심한 제 의지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저와 다른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모임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느낄 것이며,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에서는 어둠을 보게 될 것입니다.”¹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행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힘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을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갖게 될 지도 모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저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하려 했을 때 응답은 가장 분명히 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배움

이런 질문을 하실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지금 너무 커 버려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아이의 마음에 기록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비극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조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일지라도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필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해도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인생에서
맞는 시련을 열렬한
기도를 통해 헤쳐 나가는
것을 보거나 하나님이
친절히 응답해주셨다는
부모의 진실한 간증을
듣는 자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그 자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엘마는 그 필요성을 아들 코리애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엘마서 42:15)

그리고 나서 아버지 엘마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간증을 한 뒤 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이렇게 청합니다. “오 내 아들이야, 나는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기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함으로써, 네 죄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점이라도 네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자비와, 그의 오래 참으심이 네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고, 또 이로써 내가 티끌에까지 내려서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엘마서 42:30)

엘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들 스스로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엘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씻어 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줌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그분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으러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분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알고 있었으며 또 그분께서도 우리의 얼굴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떨어져 가는 제 뒷모습을 지켜보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필멸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여호와께서는 세상으로 내려와 우리가 겪을 고난을 겪으시고, 또 우리가 범할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계시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만일 성신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노스가 느꼈던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기도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거나 가사를 읽는다. 아이어링 회장이 뉴욕 시에서 아버지와 헤어졌던 부분을 읽는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설명해 보라고 권한다. 어떻게 기도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와 더욱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2.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은 하트 모양의 종이를 보여 준다. “부주의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됨” 부분을 읽고 가족들에게 깨넌 회장이 “그분의 뜻을 제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실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기를 원하도록 ... 기도”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니라 하시더라.”(이노스서 1:4~5)

여러분의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를 드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재회의 날을 열망하며 자녀와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 및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재회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열망이 끝없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얻기 위해, 그분의 자녀들은 소년 조셉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알고 계셨습니다. 유일한 비극은 잠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뉴욕에서 제 뒷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확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 부모님도 모범으로 훌륭하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날 오후에, 우리는 병원을 나와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킁킁한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침실로 가서서 몇 분간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거실로 나오셨을 때, 그분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병실에서 어머니의 소지품을 챙기고 어머니를 친절하게 돌봐 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안, 아버지는 막 돌아가신 어머니가 영의 세계로 가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맞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머니가 외로울 것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실로 가서서 그분의 아내이자 제 어머니인 밀드레드를 반겨 줄 누군가를 보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셨다는 응답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어링 할머니는 키가 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맞이하라는 책임을 맡으신 할머니께서 그 짧은 다리로 균중 속을 헤치며 급히 달려 오시는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신 셈이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에 관해 설교하셨던 기억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전능하시며,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록되어 남을 응답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로 급히 오시는 할머니를 마음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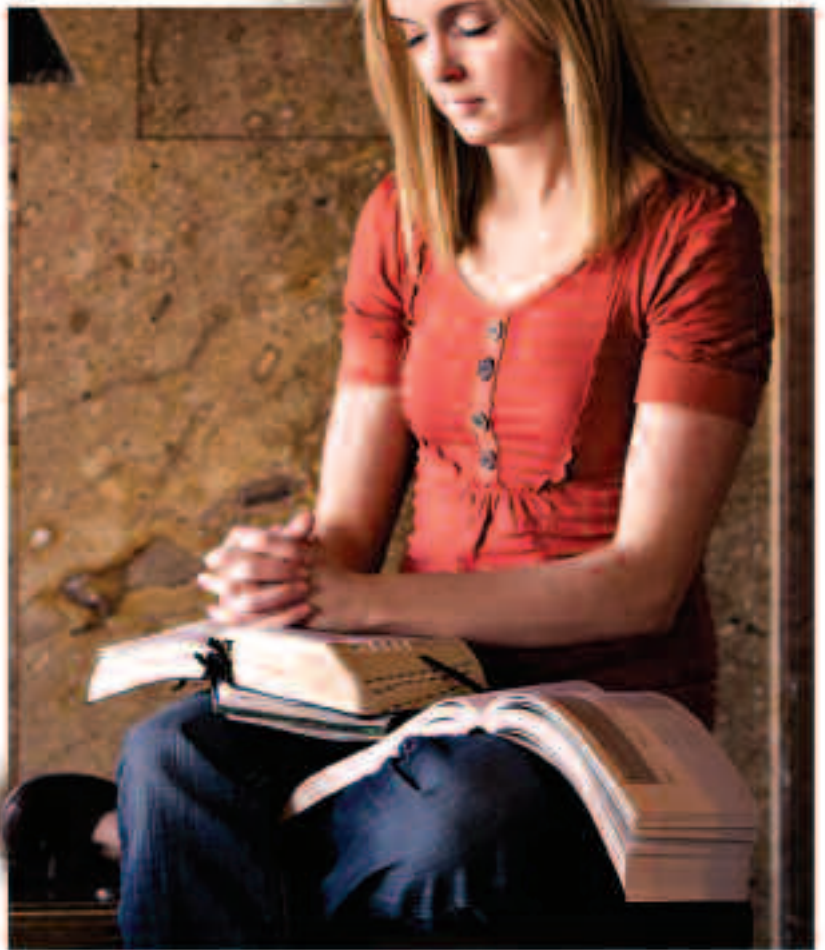
그러보면서 저는 그분들로 인해 기뻛고 제 아내와 자녀들도 그러한 재회로 인도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실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간구할 때 그 간구에 응답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우리가 그분의 참된 교회에서 맺은 성약을 지킨다면 속죄로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

주

1. 조지 큐 캐넌, "Remarks", *Deseret Semi-Weekly News*, 1890년 9월 30일, 2쪽; 강조 추가.

시 간이 흘러
자녀가
가정과
가족을 떠날 때,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갖추기를 바라는 보호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신앙의 사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9 68년 2월의 어느 날 저녁, 닐 앤더슨은 자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37개국과 미국 50개 주에서 온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이다호 주를 대표하는 학생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처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의 작은 농장에서 자란 열여섯 살의 닐에게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험이었으며, 또한 그렇게 똑똑하고 재치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속해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토론이 세계에 관한 주제로 바뀌자, 닐이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대표는 그의 신앙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닐은 자신의 종교에 관해 것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일이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예리한 설명과 제가 가진 분명한 확신을 통해 저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감사를 표했고 제가 믿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사업에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과 영향력이 있으며 이 사업을 수호할 가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충실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 할 때(베드로전서 3:15),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신앙을 행사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토대

닐 린든 앤더슨은 1951년 8월 9일, 라일과 캐스린 앤더슨 사이에서 다섯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닐의 아버지는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농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닐이 세 살이었을 때 그들 가족은 콜로라도 주로 이사했습니다.

닐의 부모는 신앙과 희생을 통해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집회소에서 145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그의 어머니 캐스린은 설명합니다.

닐이 다섯 살이 되자 그의 가족은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에 있는 낙농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닐은 토끼를 기르고 말을 타며 들판에서 형제자매들과 놀았습니다. 닐이 일곱 살 가량 되었을 때, 그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토끼가 토끼장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농장을 살살이 뒤져보았으나 토끼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헛간 뒤로 걸어가서 토끼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판자 아래의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곳으로 갔더니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과, 이와 비슷한 다른 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작고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농장 생활은 닐에게 근면의 원리를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소에게서 젖을 짜고 관개수로관을 수없이 날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성탄절 아침에도 선물 포장을 뜯기 전에 소젖을 먼저 짜야 했습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 그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운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도 닐은 운동경기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는 크로스컨트리 경주(cross-country running : 역주-근대 5종 경기의 하나. 울퉁불퉁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루어진 길로 약 1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달리는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닐은 대부분의 힘을 다른 능력을 키우는 데 쏟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이랜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닐은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 있는 보이스 스테이트(Boys State: 역주-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및 시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공직자 선출도 해 보고 모의 주 의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기능을 경험함)에 참가하여 다른 모든 대표자로부터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닐은 아이다호 주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 단체의 임원이 참여하는 아이다호 학생 연합회에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1969년, 브리검 영 대학교 일학년이었던 닐 앤더슨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나 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닐은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강하게 선교사로 나가려는 계획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닐의 유일한 질문은 자신이 정말로 봉사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앙을 강화시키려는 선택을 내렸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앤더슨 장로 역시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언급했듯이 응답은 다음과 같은 느낌으로 왔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¹ 그런 확신으로 준비된 닐 앤더슨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프랑스에서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닐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는 에드윈 에스 헝클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학생 부회장으로

맞은편, 왼쪽부터: 닐 앤더슨의 현재 모습과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 위, 왼쪽부터: 닐(중앙)과 그의 부모 캐스린과 라일, 형제자매인 로리, 웨리, 앨런, 1962년; 아이다호 농장에서의 소년 닐. 아래: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당시의 닐, 1970~1972년.





위: 결혼식 날의 닐과 캐시, 1975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오른쪽: 닐과 캐시와 그들의 자녀들, 브랜트, 데릭, 뒷줄에 캐미(해드락), 크리스틴(에버트), 1988년 플로리다 주 탬파에서. 맞은편: 앤더슨 장로가 프랑스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의 앤더슨 가족, 1990년경.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 캐시 수 윌리엄스를 만났습니다. 닐과 캐시는 그의 졸업을 앞둔 시점인 1975년 3월 20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닐은 2년간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으며, 1977년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닐과 캐시는 하버드를 다니는 동안 결혼 첫 해가 끝나갈 무렵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세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자녀 출산으로 캐시는 학업을 연기했으나 결코 학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감탄을 표합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에는[앤더슨 장로는 브라질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음]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는 책을 펼쳐서 포르투갈어를 배웠고, 포르투갈어로 18학점을 이수했어요. 아내에게는 이런 식의 결단력이 있죠.”

대학원 공부를 마친 뒤, 앤더슨 가족은 플로리다 주 탬파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은 캐시가 자란 곳이자 그녀의 가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닐은 부동산 개발, 의료, 광고업을 포함하여 여러 성공적인 사업체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닐에 대해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989년,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던 닐은 프랑스 보르도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1992년에 선교부 회장 부름을 마치고 플로리다로 돌아온 닐은 한 달도 채 안되어 플로리다 탬파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부름이 왔는데,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부름이었습니다. 2005년, 닐은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자신의 일과 교회 부름에서 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그의 헌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부부의 큰딸인 캐미 해드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그의 아들 딸들이 아직까지 사용하는 애칭]는 늘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이를테면,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자녀를 개별적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아침식사를 하셨습니다. 아침식사를 할 장소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더러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데릭 앤더슨은 아빠가 놀아 줄 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이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우리 가족은 농구경기 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어린



형을 상대로 팀이 되어 함께 농구를 했습니다.”

딸 크리스틴 에버트는 아버지가 몹시 바쁜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말을 경청하고 조언해 줄 시간을 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앤더슨 가족은 매일 밤 아주 충실하게 가족 경전 읽기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고 부모가 늦게 귀가할 경우 자녀들끼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앤더슨 가족은 종종 리아호나에 나와 있는 대회 말씀을 공부하곤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경청했습니다.”라고 데릭은 말합니다.

앤더슨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닐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구주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늘 저와 자녀들에게 보여준 애정 어린 친절은 우리 가족에게 무한한 힘이 되었고, 우리의 삶을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닐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누구나 캐시가 가정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닐은 매일 제가 하는 집 청소, 저녁식사 준비, 빨래 등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들에 대해 인정을 해 주고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크리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친절과 존중으로 어머니를 대하시는 모범에 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문을 열어 주시고, 어머니가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시고, 자원해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앤더슨 장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캐시는 주님과 저와 가족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적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아내는 저와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 아내를 저는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제가 아내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나자, 제 삶의 표준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경전 공부와 생활화 되었고, 계명의 일점일획까지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친 그녀의 영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녀에게는 순결하고 잘 다듬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동안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아내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들은 선교부 회장 시절을 포함하여 지난 20년의 세월 중 10년을 미국 밖에서 생활했으며 모두 여덟 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거의 해마다 이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처했던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그것도 대개의 경우 새로운 나라에서 사귀는 문제 말입니다. 캐시는 아이들을 결속시키고, 이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또한 쾌활했습니다. “우린 그 세월 동안 자녀들이 보여 준 희생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훌륭한 배우자와 자녀들로 풍성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라고 앤더슨 장로는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

당시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닐 앤더슨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불렀을 때, 그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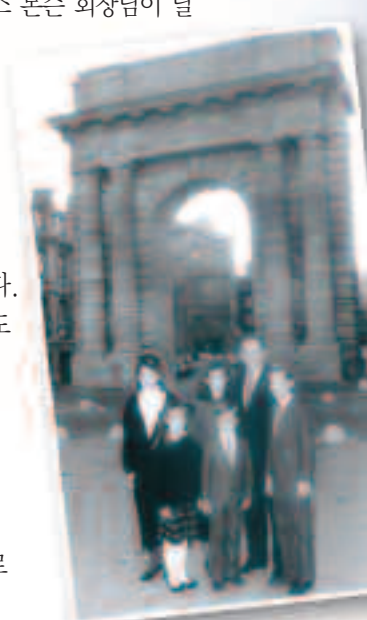
닐이 소유하고 있던 광고 대행업은 성장하고 번창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맡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앤더슨 장로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앤더슨 자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게는 항상 남편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줄곧 ‘우리가 주님을 우선에 둔다면, 그분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기적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 사업체를 사겠다는 제의가 저절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했습니다.”라고 앤더슨 장로는 말합니다.

주님의 일이 기적의 일이라는 원리는 프랑스의 선교사들도 꾸준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앤더슨 회장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던 쿄트 크리스텐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장님은 항상 주님께서 프랑스를 축복하시고자 한다는 시각을 키워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순수한 신앙과 정확한 순종에 대해 가르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앤더슨 가족은 서유럽, 브라질, 멕시코 등 어느 지역으로 지명을 받든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을 사랑했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한번은 캐시가 남편 닐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들인 수 많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 앤더슨 장로는 자신이 영적 은사를 받았으며,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은사를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현재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따름

“16년 동안,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은 제게 모범이자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고 연차 대회에서 말씀할 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닌 적극적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를 먼저 구하는 지칠 줄 모르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들 위에 임하여 그분들이 영화롭게 되고 지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적인 음성이 성취되는 것도 보았습니다.”²

앤더슨 장로는 시청각부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하는 동안 거의 매주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년)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번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파우스트 회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 기도해 보았나요? 이노스처럼 밤새도록 기도해 보았나요? 그리고는 의자에 도로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응답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밤새워 기도했어요. 형제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옳았습니다.”

앤더슨 장로가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이라는 영화의 제작과, 교회의 선교용 웹사이트인 Mormon.org의 첫 출시, 그리고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 있는 시청각 시스템 설치를 감독한 것은 이맘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앤더슨 장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의 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이사도들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가르쳐 줍니다. 단지 사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한 사람을 위한 봉사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주께서 하시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회장님은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앤더슨 장로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전에 앤더슨 장로가 잠시 만났던 한 청년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어느 날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간이식당에 앉아 있는 앤더슨 부부를 본 일을 떠올립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앤더슨 장로님을 보자 저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그분에게로 갔어요.’”

그 청년은 당시에 겪고 있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외모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앤더슨 장로는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앤더슨 부부는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제공하고는 그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 앤더슨 장로는 한밤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청년을 차에 태우고 몇 시간을 운전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앤더슨 장로님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설명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장로님은 여전히 우리 아들을 만나고 아들의 삶에 관심을

주요한 교회 봉사

- 1970~1972년: 선교사, 프랑스
- 1984~1989년: 플로리다 탬파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 1989~1992년: 프랑스 보르도 선교부 회장
- 1992~1993년: 플로리다 탬파 스테이크 회장
- 1993년: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음
- 1994~1997년: 유럽 서 지역 회장단 보좌
- 1998~2001년: 교회 시청각부 집행 책임자
- 2002~2005년: 브라질 남 지역 회장단 회장
- 2005~2009년: 칠십인 회장단
- 2008~2009년: 칠십인 회장단 선임 회장
- 2009년 4월: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 받음



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한번은 앤더슨 장로가 병원에 갔다가 로라 맥퍼슨이라는 26세의 환자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암과 관련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낸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앤더슨 장로님은 딸에게 신권 축복을 주시고,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보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로라에게 감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고는 그 이야기를 비와이유 하와이 캠퍼스에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답니다.

“로라가 회복되고 있을 때, 앤더슨 장로님은 로라를 그분의 사무실로 초대해서 교회 본부 건물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로라가 지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앤더슨 장로님은 로라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자신이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예감하는 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장로님은 여행 일정을 변경하시고 로라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앤더슨 장로님이 세계적인 책임과 가족 책임을 수행하시면서도 여전히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시는 그 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내어 도움을 주라는 구주의 권고를 따르시는, 참된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의 증

아버지가 사도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들 브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름은 인생을 바꾸는

맞은편, 왼쪽부터: 영화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악 제작을 마친 후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과 함께, 2000년;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의 재헌납과 관련한 축하행사에서 말씀하는 장면, 2004년; 선교부 회장으로서 1992년 프랑스 보르도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동안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과 함께; 2009년 4월 연차 대회 동안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함께. 오른쪽: 자녀 및 손자 손녀와 함께한 앤더슨 장로 부부, 2006년.

부름이지만, 그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삶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지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분들의 사적인 모습과 똑같이 때문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 말에 동감할 것입니다.

앤더슨 장로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분명히 입증되었던 그 신앙은 여전히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확신있게 가르치는데, 주로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에 매우 충실하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권고는 확실히 현명합니다. 나는 그가 예언적인 통찰력을 축복받았음을 보아 왔으며, 그러한 통찰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새 부름의 망토를 입고서 커져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성스러운 봉사를 시작하면서 앤더슨 장로는 겸손하게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거룩한 사도 직에 부름 받기 위해 예외 없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한 가지 자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제가 그 자질을 갖추게 해주셨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³ ■

주

1. 닐 엘 앤더슨,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3쪽.
2. 닐 엘 앤더슨, “내게 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9쪽.
3. 닐 엘 앤더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8쪽.



A학점보다 더 좋은 것

사랑스러운 일곱 살짜리 아이를 무시하는 영웅이 어디 있을까?

산다 스티븐스

아 무리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도 단테 신곡 지옥 편の内容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열 시였다. 아침에는 지옥 편 중에서 여덟 개 장에 대한 시험이 있는데 아직 읽지도 않았고, 영어 수업 과제인 개요 작성도 해야 하는 데다가, 새벽 6시에는 세미나리 건물에서 열리는 모임에도 가야 한다. 어서 과제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내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것 같아

나는 주위에 흩어진 나뭇잎을 굽어모아 목이 쉬어버린

그의 발 밑에 가만히 놓았다.¹

진전이 없던 이 긴 밤을 이겨낼 집중력이 이제야 생기는 것 같았다.

… 그리고 우리는 제2원과 제3원과의
경계선까지 와 있다. 거기에는 무서운
신벌의 업을 볼 수 있었다.

“안녕, 산 언니,” 일곱 살 난 동생 샬린이 말했다.

나는 얼버무리듯 대강 대답했고 동생이 그냥 지나가길 바랐다. 어디까지 읽었더라? 흠 … 신벌의 … 업 … 아, 여기였지!

… 지금껏 본 적 없는 진귀한 광경을
설명하자면, …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샬린이 옆에서 들고 있는 아기 인형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성가신 어린 동생의 철통 같은 감시하에 있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동생의 반짝거리는 에메랄드 빛 눈동자가 흥분해서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2학년 전체가 영웅의 날 행사를 한대. 그날 모두 자신이 택한 영웅의 의상을 입고 그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하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영웅의 의상은 하루 종일, 쉬는 시간에도 계속 입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여동생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재잘댄다면 지옥 편 여덟 장도, 중요한 개요 작성 과제도 끝내지 못할 것이며, 전 과목 A를 받겠다는 내 목표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뭔가 수를 내야 했다. 동생이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부디 동생이 흥미를 잃고 가족 중 다른 누군가에게 “영웅의 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검지 손가락을 다시 지옥 편 의 글귀로 가져다 대었다.

… 우리는 평지에 왔으나
그 땅에는 …

“그리고 우리는 영웅들의 사진도 찍을 거고…”

숙제를 하느라 내가 밤을 새야 한다는 것을 왜 몰라주는 걸까? 부풀어 올라 터지려고 하는 비누 방울처럼 나는 폭발하기



내 여동생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재잘댄다면 지옥편 여덟 장도, 개요 작성 과제도 끝내지 못할 것이며, 전 과목 A를 받았다는 내 목표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뭔가 수를 내야 했다. 동생이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동생이 갑자기 말을 멈춰서 나는 조금 놀랐다. 그러나 나는 동생이 결국 내가 영웅의 날 이야기에 관심이 없음을 알아채 주길 바라면서 책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언니” 동생이 순수하고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시선은 여전히 단테의 글귀에 고정되어 있었다.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동생은 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함 감이 없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뒹아빠진 책장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언니, 언니가 내 영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영웅의 날에 언니의 수상 안전 요원 유니폼을 좀 입어도 돼?”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동생을 바라보았고, 고개를 숙여 앞으로 떨어진 금빛 머리칼락 사이로 동생의 슬픈 얼굴이 보였다. 내가 살린 영웅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랑스러운 일곱 살 난 아이에게 잠시 시간을 내주지도

못하는 영웅이라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은 나는 죄책감에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 놓고 책을 치웠다. 그리고는 나를 그렇게나 따르는 귀엽고 조그마한 내 동생의 손을 잡고 내 방으로 갔다. 동생에게 나의 자외선 차단 셔츠를 입히고, 물안경을 이마 위로 씌워주며, 희미하게 “산다”라고 써 있는 해상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 주었다. 동생은 나를 올려다보더니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어 주었다. 동생이 보여준 사랑은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어떤 성적보다 내 동생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

주

1. 단테, 신곡 지옥 편, 14곡 참조.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매일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 패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영과 더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새로이 느끼고 “생수의 근원”(니파이전서 11:25)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1820년의 한 이른 아침 숲 속으로 들어갔을 때 보여 준 패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명상과 경전 공부를 하는 아침 영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단 몇 분만이라도 이러한 영적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소음과 동요를 벗어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늘이 열리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의 나타내심, 천사들의 성역, 혹은 권능의 발전, 하나님의 위엄 또는 영광이 공공연히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물며, 만약 나타난다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사들이 오거나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개인에게 침실이나 광야, 혹은 들뜬에서 은밀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나타내셨다.”¹

아쉽게도, 오늘날의 삶은 소음과 동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영의 음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820년의 어느 봄날, 종교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조셉 스미스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서서 숲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분 모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여심으로써 놀랍도록 명확하게 주어졌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4~19 참조)

이와 유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열쇠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감독들을 가르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권고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감독에게는 명상하기 위해 들어가고 인도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숲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 장소가 오래된 저희 와드 예배당이었습니다. 깜깜한 밤 늦은 시각에, 제가 축복 받고, 확인 받고, 성임 받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결국 감리하도록 부름 받았던 그 건물에 홀로 갔던 적이 몇 번인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예배당은 앞에 있는 가로등 불빛으로 어슴푸레 빛을 받고 있었으며, 완전히 고요했고, 방해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생각과, 근심과, 문제들을 그분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²

물론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성스러운 숲”에서의 순간들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과 같은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볼 것이라 기대하며 숲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우리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영적인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할 때 거기에는 큰 권능이 따릅니다. 깊이 숙고한 뒤에 갖는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시편 46:10;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아침에 하는 기도와 경전 공부의 권능

제가 하와이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던 여러 젊은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심하게 낙심했던 한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고, 자신이 가진 간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제게 자신을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니파이의 모범을 따라 그의 걱정과 소망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니파이전서 10:17; 11:1 참조)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방법이며, 다른 많은 총관리 직원들이 따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선교사에게 숙소로 돌아가서 다음의 것들을 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그의 경우에는 오전 6시 반 몇 분 전.
- 몇 분간 운동을 한다.

- 면도와 샤워를 한다.-자신을 청결하게 한다.
- 정장을 착용한다.
- 숙소 내의 조용한 장소로 간다.
-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영을 낮추고 그분을 부른다. 경건한 기도로 그분과 대화한다.
- 경전이나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을 상고하고 자신이 가진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영감을 기다린다.

저는 이 젊은 선교사에게 만일 그가 이렇게 행하고 매일 몇 분간 경전, 특히 몰몬경을 깊이 상고한다면 기쁨을 찾게 될 것이며 선교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³

며칠 후 그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이른 아침에 갖는 영적 시간 동안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종으로서 훌륭히 봉사했으며,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귀환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볼 특권을 갖게 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저는 이 복음의 빛을 하와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 방법을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소개의 수가 증가했으며, 가르치는 기회도 많아졌고, 선교부의 침례 수가 기존의 두 배를 넘어 세 배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선교사들의 노력이 성신의 권능을 통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따른다면 영적인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것임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며,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니파이전서 11:22~25; 교리와 성약 50:28~29 참조) 성신이 여러분의 영에 속삭이며,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아들과 딸,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여러분은

물 론 이런 개인적인 “성스러운 숲”에서의 순간들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과 같은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음

제가 아는 교회 회원 한 분이 계신데,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 여섯 명의 훌륭한 자녀를 두신 분입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어머니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와드에서도 훌륭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자매님은 점점 낙담하게 되고 영혼의 공허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때때로 느끼는 무능력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 신권 지도자들, 그리고 특히 남편과 의논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집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의 성스러운 영감을 기다려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자매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 자매님은 매일 그런 고요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발치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근심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그분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고,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치유하는 자의 손길”⁴에 대해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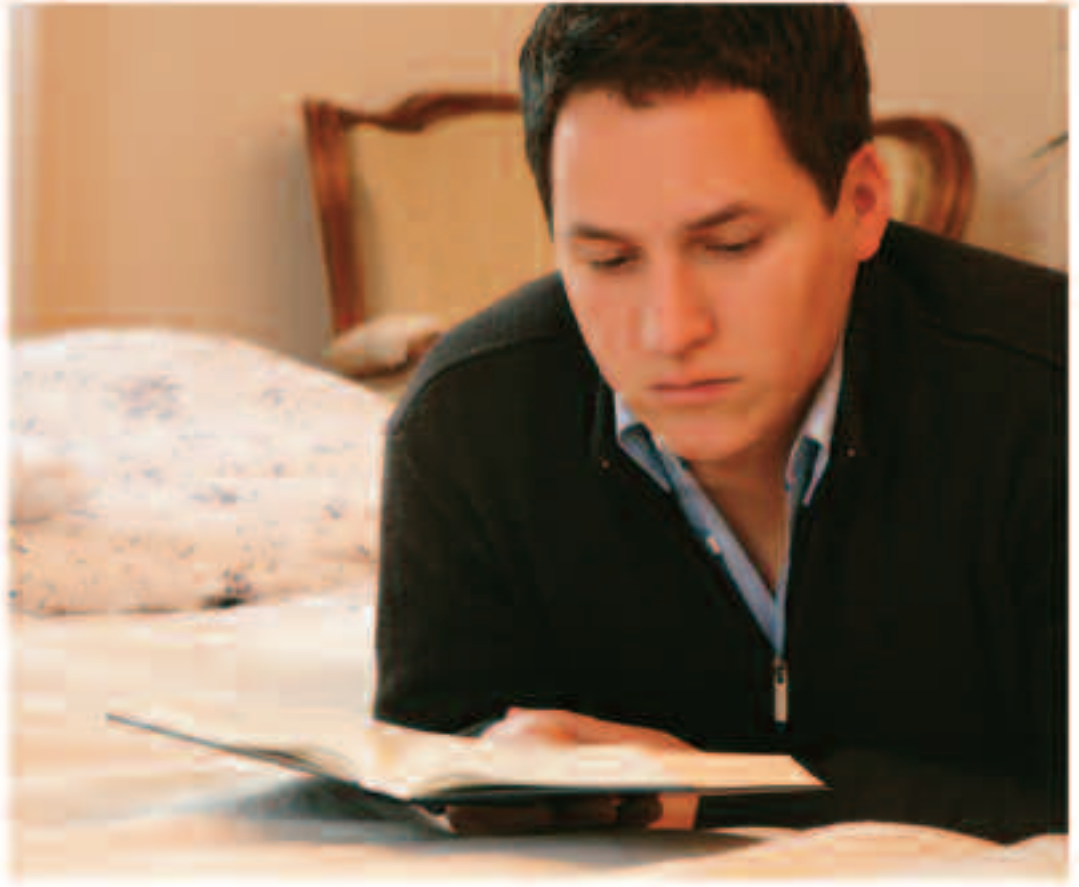
속죄에 대한 위대한 이해력

더 큰 영적인 힘을 위해 매일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그리고 그분의 속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선하심”(몰몬서 1:15)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큰 기쁨”(니파이전서 8:12)과 더불어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권능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필멸의 성역 동안, 특히

더

큰 영적인
힘을 위해
매일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그리고 그분의 속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선하심”을
맞보고 “심히 큰 기쁨”과
더불어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권능을 느낄
것입니다.



겻세마네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들로
인해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6:51; 앨마서
7:11~12 참조)

수년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1873~1939)은 미국 몬태나 주에 있는 포트팩 인디언
보호구역을 방문하는 동안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영감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로님은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나는 꿈에서 한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 곳에서
이제껏 보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영광스런 존재를
보았다. 나는 앞으로 나가 그분께 소개되었고...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고 손을 내미셨다. 내가 앞으로 백만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미소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팔로 나를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며 내게 입을 맞추시고 내
존재에 전율이 느껴질 때까지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분이
축복을 마치셨을 때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졌으며, 그분의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았다. 그 못 자국에 입을 맞추자 내 존재를
올리는 심히 큰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이곳이 진정

천국임을 느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오! 내가 그분의
면전에 서서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만 있다면, ...
내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바칠텐데!

“내가 살아 있음을 아는 것처럼,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⁵

여러분들이 이 생애 동안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여러분 집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제3니파이 19:16~23, 25~29 참조)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재, 2007년), 121쪽; 또한 History of the Church, 5:30~31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The Bishop-Center Stage in Welfare [감독-복지의 중심]”, *Ensign*, 1980년 11월호, 90쪽.
3. “주여 내 영 감동하시라”, 찬송가, 90장 참조.
4. “Lord, I Would Follow Thee”, 영문 찬송가, 220장 참조.
5. Melvin R. Ballard의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의심자권(1966년), 66쪽.

지나치게 많은 정보?

불필요한 코드를 뽑아 삶을 단순화시키십시오.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내부로부터의 위험을 경계함:

믹스코 비에호의 전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용 집 작업을 하던 바이런 이쿠익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스크를 올리고 이마의 땀을 닦는다. 과테말라시티 플로리다 스테이크 샌환 지부 회장의 이쿠익 지부 회장은 그의 아내 에텔비나 자매와 그들의 네 자녀를 위해 새 집을 짓는 중이다.

이쿠익 회장은 그의 가족을 사랑하며, 집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고 견고하기를 바란다. 자물쇠, 조명, 튼튼한 지붕과 벽은 그의 가족을 인간과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에 불과하다.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므스코 비에호의 전설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이쿠익 회장은 집이 밖에서 안으로 침투해 오는 것들을 잘 막는다 하여도 그의 가족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가족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에서 올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믹스코 비에호의 붕괴

이쿠익 회장의 집 부근에 있는, 폐허가 되어 버린 도시 므스코 비에호의 역사는 서기 900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500년 전, 붕괴되기 전의 도시는 분명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요새화된 그 도시는 사방이 급경사를 이루는 언덕이 계속되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의

과 테 말 라

• 므스코 비에호

추측에 따르면 한때 그 도시에는 1,500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를 둘러싼 골짜기에는 7,000여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한다.

믹스코 붕괴의 역사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설은 많은 교훈을 가져다준다. 1525년, 스페인인 정복자 페드로 알바라도가 므스코 비에호를 포위했다. 스페인인들과 그들의 토착 동맹 세력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큰 손실을 겪으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므스코 비에호는 그 안의 주민들을 지켜 주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안식처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얼마간 떨어진 곳의 동굴에 있는 도시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므스코 비에호의 주민들은 그 통로가 너무나 작고 잘 숨겨져 있어 방어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페인인들은 그 통로를 찾아냈다. 그들은 주민들이 방어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던 작은 틈을 이용해 내부에서 도시 주민들을 기습했으며 므스코 비에호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약점을 파악함

이쿠익 회장은 가정과 가족이 바로 므스코 비에호와 같다고 생각한다. 즉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교리와 성약 76:29)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적은 늘 침투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이쿠익 회장은 말한다.

무방비 상태의 문을 찾아낸 적을 막을 수 있는 벽은 없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함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폭풍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피난처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남아 있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영향력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톨 페리 장로, “가족의 중요성”,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0쪽.

위: 과테말라에 있는 므스코 비에호의 유적지를 방문 중인 바이런과 에텔비나 이쿠익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인 (왼쪽부터) 브리세이다, 바이런, 글렌다, 벨슨. 전설에 따르면 특정한 방비를 갖추었던 그 도시는 적이 비밀 통로를 발견한 이후 정복되었다고 한다.



바이런과 에텔비나 이쿠익 부부는 자녀들을 영적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적이 가족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여 회개에 대해 가르친다.

그것이 물리적인 벽이든 영적인 벽이든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벽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적이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틈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 중 많은 문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와 관련 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은 후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가족을 강화함

성신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판단할 때 필수적인 존재이다.

몰몬은 “판단하는 길은 어두운 밤과 낮의 빛을 구별함같이 명백”하다고 가르쳤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모로나아서 7:15~16)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신을 불러오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포함시키고 성신을 거스르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이쿠익 회장은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표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를 성신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는 것은’(교리와 성약 45:57) 가능한 일이며,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고 살아남는 데 불가결한 것입니다.”¹

벽을 재건함

오늘날, 사람들은 므스코 비에호의 유적을 보존하고 재건하고자 애쓰고 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쿠익 회장과 자매는 가족을 지키고 세상에 맞서 가족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이 또한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 기도(교리와 성약 10:5 참조), 가족 경전 공부(니파이전서 15:23~24 참조), 가정의 밤(니파이후서 25:26 참조)을 하고,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침(교리와 성약 88:34 참조)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쿠익 회장과 자매는 또한 회개에 대해 가르친다. 그들과 그들 가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해도 방어해야 할 문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잠시 한눈을 팔아 약해진 순간에 추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순간에 대비하여 이쿠익 회장과 자매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도(교리와 성약 68:25 참조) 가르쳐야 함을 인식한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 때 벽에 틈이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신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전은 지연될 것이며, 우리는 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이쿠익 회장은 말한다.

해질 무렵, 므스코 비에호의 전설에 대해 생각하며 이쿠익 회장은 연장을 치우고 밀려오는 어둠에 맞서 저녁 기도를 드리고자 가족을 한자리에 부른다.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0쪽.

교육과 평생 학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성구와 인용문,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영적, 세상적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93:36~37: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진리니라. 빛과 진리는 저 악한 자를 버리느니라.”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경전을 연구하는데 ... 바쳐야 (교리와 성약 26:1) 하며 ‘몰몬경과 거룩한 경전은 [우리의] 교육을 위하여 ... 준 것이라’ (교리와 성약 33:16)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매들은 가정에서 복음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로서 복음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시작하시고 이생과 영원한 시간에서 맡게 될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7~108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영적인 문제에 관해 공부하는 것 외에도, 세상의 학문 또한 필수적입니다. ... 여러분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지금도 받고 있지 않다면, 여건상 필요한 경우가 올 때,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교육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공부하고 배울 때 여러분의 재능은 커질 것입니다. 가족이 공부할 때 더 잘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을지도 모를 만일의 경우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9쪽)

어떻게 하면 평생에 걸쳐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몇 가지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필멸의 삶뿐만이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한 배움을 원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영의 눈으로 명백히 볼 때, 여러분은 세상적 지식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영적 지식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

“...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판별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무엇을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참되며 유용한지 알도록 해 주는 것을 읽거나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단지 재미를 위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야말로

우리를 구분지어 주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Education for Real Life”, *Ensign*, 2002년 10월호, 18~19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평생에 걸쳐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속성 중 몇 가지는 용기, 충실한 소망, 겸손, 인내, 호기심, 그리고 소통하며 우리가 얻는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성으로서나 어머니로서의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경시하지 마십시오. ... 평생에 걸친 배움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세상이 규정짓거나 손상시키거나 제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동반자에게 가져다주는 영원한 배움과 도움의 가치를 말입니다.

“평생 학습은 인간의 정신, 육체, 그리고 영혼의 활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와 자아 실현을



항상시켜 줍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힘을 가져다주며 노화, 우울증, 그리고 자기 불신에 대한 훌륭한 방어책이 됩니다.” (“The Journey of Lifelong Learning”, *Brigham Young University 2008~2009 Speeches* [2009년], 2, 8~9쪽) ■





산후 우울증 관리:

복음의 관점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여성에게는
남편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린 클락 캘리스터
브리검 영 대학교 간호 대학 교수

아기를 하나 더 갖기 위해 4년 동안 노력한 끝에 딸을 출산한 애나(가명)와 그녀의 남편은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애나는 사내 아이들을 돌보기도 벅찬데 갓난 아기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챙기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곧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나를 비롯한 모든 어머니들은 아기를 갖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며 산모들은 인생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산후 기분 장애로 인해 이 행복감이 크게 저하됩니다. 산후 우울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이 증상을 겪는 여성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는 영적인 고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여성들은 이 큰 변화의 시기에 자신이 “최고의 엄마”이자 “최고의 아내”여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갓난 아기를 위해 즉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일종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자기 자신에게 지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산후 우울증이 무엇인지(또한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고, 그 증상을 인식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울증에 잘 대처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 우울증이 찾아 온다고 해서 산모가 허약하다든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밀려오는 우울감을 산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울증은 한시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고난들과 마찬가지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자 노력할 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본부 청년 회장을 역임한 아테스 지 캡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알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은 대부분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 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간증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 좌절이, 또 가슴앓이가 있었던 곳에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오직 여호와의 양망하는 자’ (이사야 40:31)에게 임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7) 자리잡게 된다는 것입니다.”¹

“베이비 블루스”와는 달라요

일부 산모들은 산후에 일시적으로 슬픔을 느끼는 “베이비 블루스(baby blues)”라는 현상을 겪습니다. 해당하는 증상에는 눈물, 짜증, 피로, 불안감, 감정 기복 등이 있으며, 이 증상은 주로 산후 1주일 내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열흘 가까이 지속됩니다. 베이비 블루스는 산모가 겪는 신체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수면 부족, 영양 부족, 까다로운 아기의 양육, 주변 사람들의 도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베이비 블루스는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며 산모의 80% 이상이 겪게 됩니다.

반면 산후 우울증은 생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과학자들은 임신기와 산후에 체내 호르몬 수치가 급변하면서 두뇌의 화학적 변화가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기를 갖는 데 대한 스트레스와 피로까지 가중되면 그것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의 열 명 중 한 명은 산후 우울증을 겪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산후 4주 이내에 시작되지만 향후 1년 간은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은 대부분 과거에 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감정 기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거나 악화될 경우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는 일부 여성들은 수주 이내로 정상적인 감정을 되찾기도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몇 달 동안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울증의 증상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상쾌한 기분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증상

산모들은 우울감을 갖는 것이 허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비웃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타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증세를 남에게 알리지 않게 되면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은 산후 우울증에 대한 가족의 경험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 아내 캐롤린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저에게까지도 우울증 증세를

숨겼습니다. 저로서는 아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캐롤린은 자신이 감독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친구들, 친정 어머니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명한 간호 연구사인 셰릴 타타노 백 박사는 산후 우울증을 가리켜 “모성을 훔쳐가는 도둑”²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절친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 증상의 발현 여부를 잘 살핀다면 이 “도둑질”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모에게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를 주의하십시오.

- 매일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한 기분으로 보냄.
- 웃음을 잃거나 아기와 놀아주지 않음.
- 얼굴이 축 처져 있거나 아무런 표정이 없음.
- 슬픔이 오래 지속됨.
- 산모 자신이나 아기가 갖고 있다고 느끼는 흠이나 결점에 대한 잦은 언급.
- 죄책감 혹은 무력감.
-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함.
- 아기가 떼를 쓰거나 우는 데 대해 짜증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함.(산모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면적인 증상에 관한 내용은 30쪽의 “산후 우울증의 증상들” 참조.)

가족 및 가까운 친구들이 위에 열거한 몇몇 증상들을 관찰하였으나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산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가 [혹은 우울한가, 절망적인가]? 그런 기분을 느낀 지 얼마나 되었는가?” 혹은 “삶에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되는가?” 산모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세를 파악하면 우울증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의 관리

산후 우울증을 관리하는 것은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아기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적 환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산모의 기분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후



가족과 절친한 친구들은 우울증 증상의 발현 여부를 살피고
 도움과 관심을 줌으로써 산후 우울증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관리는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앓는 여성에게 있어 남편과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³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남편이 더욱 깊은 이해심을 갖는 것입니다. 남편은 산모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도움과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 가사와 다른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 한다.
- 손님들의 방문을 제한하여 안정된 환경을 조성한다.(일부 여성들은 손님을 맞는 것이 오히려 우울증 증세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 산모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며 운동하도록 돕는다.
- 아기 돌보는 일을 돕는다.
- 산후 우울증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 필요한 경우 신권 축복을 한다.
-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상하게 대해 주며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당신 정말 힘든 것

아이”와 같이 짧은 대화라 할지라도, 따뜻한 포옹과 함께 건넌 때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산모로 하여금 전문의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셋째 아이를 가진 후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레이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찮은 일들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심과 동정심을 가져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산후 우울증은 이해하기 힘든 질병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는 혼란이나 낙담, 분노나 죄책감, 또는 불안이나 당혹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나 독서를 통하여 산후 우울증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아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남편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쌍둥이를 조산으로 얻은 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린 조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이와 같이 전합니다. “그것은 남편 샘과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한결 더 공고해졌습니다. 어린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는 남편의 신권 축복을 통해 힘을 얻었고 서로 간의 소통과 주님과과의 교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의 도움뿐 아니라 친척들과 교회 회원들 역시 큰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캐슬린

산후 우울증의 증상들

산 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에게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 완벽해지려는 욕구에 시달린다.
- 중압감 혹은 패배감에 휩싸인다.
- 기대했던 바가 산산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 절망에 빠진다.
- 집중하거나 몰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외로움을 느낀다.
- 공황 상태에 빠진다.
- 수면 장애.
- 식욕 부진.
- 실성한 듯이 보인다.
- 근근이 하루를 이어간다.

에이치 휴즈 자매는 자신이 겪었던 산후 우울증과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은 도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 저는 끔찍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안 여성들에게는 대대로 산후 우울증의 내력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전문의들조차도 이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을 혼자서 헤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가끔씩 저를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제가 마음의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와드 자매님들 덕분에 저는 한결 견디기 쉬웠고,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산모들을 위한 단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첫 아이를 가진 후 외로움을 느꼈던 크리스틴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제가 살던 주거 단지의 젊은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공통점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잠시나마 눈물을 그치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치료. 산모에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www.ldsfamilyservices.org 참조) 혹은 의사가 추천하는 기타 기관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일부 산모들에게는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의료진이 처방하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 챙기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 자신이 최대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섭취하며 엄마들 모임이나 자녀들의 놀이 집단을 통해 “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된 일이기며, 산모는 계획을 세울 때 “범사에 기한이”(전도서 3:1) 있음을 기억하면서 너무 빠빠하지 않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네 딸을 낳은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히고 먹여야 할 큰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사일이나 요리를 그만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빨래는 한 번만 돌리고, 화장실은 전부가 아닌 세면대만 닦으며, 식단을 미리 짜고 남편에게 쇼핑을 부탁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을 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일해도 성취감을 맞볼 수 있고 큰 힘이 납니다.”

그 밖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다음 활동들은 산후 우울증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밝고 건전한 음악 감상하기.
- 경전 혹은 영감을 주는 글 읽기. 안나는 특히 니파이후서 4장에서 좌절과 의심 후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느꼈던 니파이의 마음에 대한 기사를 특히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그는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니파이후서 4:20)
- 일지 쓰기. 레이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지를 쓰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저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감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제가 받은 축복들을 세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도움과 위로를 받기 위해 기도함. 안나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울증에 빠지자 제게 몹시 필요했던 성신의 위로를 느끼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저를 심적으로



**고난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역경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의심하게 만드는 제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떨쳐 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조hana 역시 개인 기도와 명상을 통해 스스로와 주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의미하는 바

고난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역경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희망을 움켜쥐기 위해 노력하는 이를 혼자 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⁵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홀런드 장로님의 아내인 패트리샤 홀런드 자매님도 “우리의 영의 온전함, 즉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삶의 굴곡에 균형을 가져오는 우리 몸의 조화로움”⁶을 되찾을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저는 어둠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53:3~4절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란 대목을 읽으며 저는 주님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이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구주이시며 “[우리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이사야 61:3)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제 마음이 구주를 향할 때 저는 그분께서 저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과 제가 주님께 다가갈 때 그분의 섬세한 손길이 저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히 느꼈습니다. ■

주

1. 아레스 지 캡, “Pray Not for Light Burdens but for Strong Backs [가벼운 짐을 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튼튼한 허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원의 기쁨: 2004년 비와이유 여성 대회 말씀*(2005년), 116쪽.
2. 세릴 타타노 백, “Postpartum Depression: It Isn't Just the Blue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제106권, 5호(2006년 5월), 40쪽.
3. “가족: 세상에 접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4. 캐슬린 에이치 휴즈, “Serving and Supporting One Another [서로 봉사하고 도움], *우리 구주주의 반석: 2002년 비와이유 여성 대회 말씀*(2003년), 52쪽.
5.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2쪽.
6. 패트리샤 홀런드, “One Thing Needful: Becoming Women of Greater Faith in Christ [필요한 것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가진 여성이 됨], *Ensign*, 1987년 10월호, 30쪽.

“제 친구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친구가 담배를 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답 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친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교회 회원이라면 담배가 지혜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 염두에 둘 점은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되며 안 좋은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할 때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친구의 건강과 영적인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밝히십시오. 친구가 담배를 끊을 의향이 있다면 야심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십시오.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89쪽을 함께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배우면서 금연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개인적 의지가 강해진 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를 잠재워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친구에게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 보십시오



그 친구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말해 주십시오. 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일깨워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 싶다고 말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 보십시오.

알리샤 에스, 13세, 미국 유타 주

모범을 보이십시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주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만이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고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번은 친구들이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있는 대로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고 성전과 같다고 믿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사랑하고 잘 돌봐야 해.” 친구들은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 각자의 신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우리 몸을 정성들여 돌본다면 건강과 지식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의 표정 속에서 저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눔으로써 의를 선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이클 티, 18세, 필리핀 팔라완

기도하기를 권하십시오



저 같으면 먼저 친구가 지혜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친구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흡연이 가져다 주는 나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친구에게 그녀의 몸은 앞으로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몸이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과,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리란 점을 또한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충고하겠습니다.

다니엘 시, 17세, 나이지리아 리버스

신뢰를 얻으십시오



저는 언제나 친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친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과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친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조언도 해 주고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도 자기를 염려해 주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말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인 엘, 18세, 미국 애리조나 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친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염려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친구가 깨닫게 되면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담배를 피우기로 한 친구의 결정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친구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일깨워 주며

흡연의 폐해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과 그 계명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나와 있는 경건 구절을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고리와 성약 89편 참조)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피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마리아나 에스, 18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의 몸을 보살핌



우정이란 너무나도 미묘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친구에 대한 염려의 뜻을 표현하면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친구에게 신체적인 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기회를 엿봐서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정성스레 보살필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켄트 피, 21세, 캐나다 알버타 주



도움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으며 세상의 죄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진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힘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이해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뻗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97쪽.

다음 호 질문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제가 가진 표준을 유지하려는 모습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조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답을 2009년 9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9/09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드(혹은 지부)

스테이크(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쇄를 허가합니다.

서명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축복사의 축복은 언제쯤 받는 것이 좋을까요?

로버트 케이 웨그스태프

축복사, 유타 스프링빌 웨스트 스테이크

재닛은 열일곱 살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 저의 집에 왔습니다. 축복을 주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재닛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라는 감독님의 추천을 이미 몇 달 동안이나 받은 뒤에야 제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닛은 자신이 받을 축복이 스스로 성취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할까 봐 걱정이 된 나머지 몇 달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가 잘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재닛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은 계명이 아니란다. 네 축복문에 담긴 약속들은 네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만 성취되는 거야.” 저는 또한 축복사로서 그녀를 판단하지도 질책하지도 않으며, 단지 축복을 줄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축복사란 무엇입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디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준 것처럼, 성도들의 후손에게 유익을 위해 축복사가 있어야 합니다.”¹

여러분의 축복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 중입니다. 그분은 축복사 직분에 성임되어 일평생 그 직분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분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직면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연세가 지긋한 분입니다.

그분의 부름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담자가 아니며, 따라서 상담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감독도 아니며,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축복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생각, 개념, 심지어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말들을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축복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사는 그가 받은 개념과 생각들을 포함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사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해롤드 비 리 회장님(1899~1973년)은 축복사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능성의 책에 나오는 한 [단락]”²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축복사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놓을 때, 다음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사가 지닌 권세 표명. 축복은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와 성신의 영감을 통해 주어집니다.

혈통에 대한 선언.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한 지파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축복과 책임을 상속받습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해 축복사는 여러분이 어느 지파를 통해 이 축복을 받게 되는지 선언합니다. 이 혈통은 단순히



축복과 간증

“축복사의 축복은 그 축복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할 만큼 성숙한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놀랄 만한 특권입니다. 이 특별한 축복은 우리 각자를 승영으로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고 굳건해질 것이며, 축복사의 축복을 읽고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 삶에 대한 더 큰 목적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년), 제일회장단 제2보좌, “축복사의 축복”, *Tambuli*, 1983년 6월호, 30쪽

여러분의 인종이나 국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같은 가족 구성원일지라도 서로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혈통은 종종 주님의 왕국에서 여러분이 맡은 책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또는 유다의 혈통이며,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 방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일반적인 지파들입니다.³

개인에 대한 축복.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영감적이고 계시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축복에는 또한 여러분이 실현할 수 있는 성취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약속, 그리고 여러분을 위협이나 역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고와 경고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축복문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일이 다 언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들은 포함될 것입니다. 만일 축복문에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 이행을 축복사의 축복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축복문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문의 길이가 여러분의 합당성을 말해 주는 척도는 아닙니다.

자신의 축복문을 읽는 것은 경전을 읽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훌륭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문을 더 많이 읽어 볼수록,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성스러우며, 은밀한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궁금해 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성신의 영감을 통해 주어지며, 마찬가지로 그것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같은 영의 영향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⁴

축복사의 축복을 언제 받아야 하나?

간단히 말해서, 축복을 받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준비”된다는 말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준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십대 시절일 것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자립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또 인생과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축복을 받기 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친구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기 원하기에 그것을 소망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마음을 올리는 말씀을 들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구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기는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군대에 들어가거나, 또는 성전에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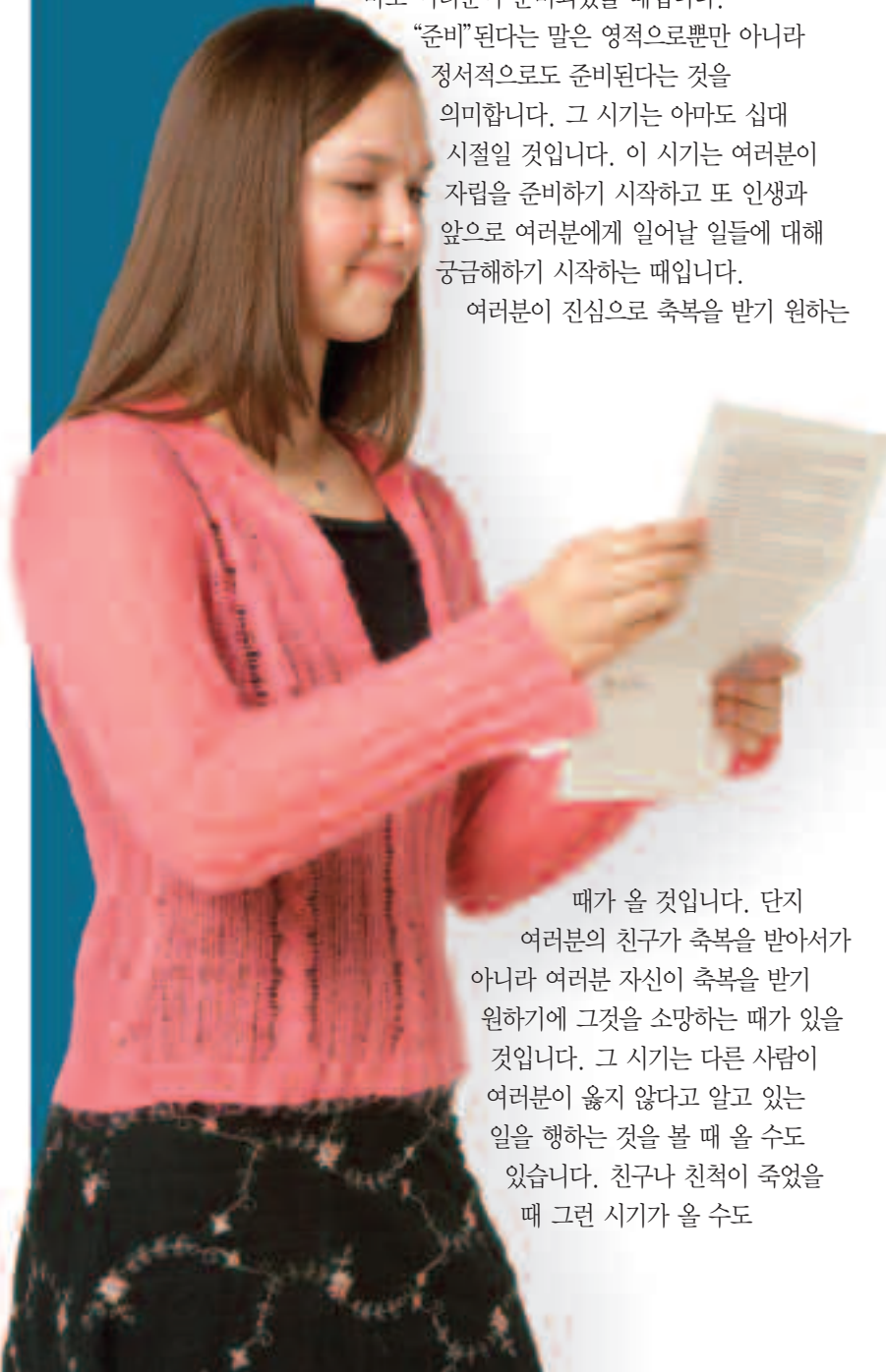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접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합당성에 대해, 즉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활동 회원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기 위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생활하는 법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합당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경전 공부,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은 축복에 대한 소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 축복사는 여러분에게 기록 사본을 줄 것입니다. 이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합당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상시키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벨기세텍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재, 2007년), 139쪽.
2. 칼 지 메저, 해롤드 비리, *Stand Ye in Holy Places*, 1975년, 117쪽에서 인용.
3. 델린 에이치 옥스, “축복사의 축복”,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5년 1월 8일, 8쪽 참조.
4. 델린 에이치 옥스, “축복사의 축복”, 10쪽.



너무 종교적이라고?

이안 칼루바난은 교회에 들어온 후 변했다.
친구들이 그것을 느꼈다.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넌 너무 종교적이야.”
열두 살인 이안 칼루바난은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이 종교적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친구가 말을 이었다. “물론 교회에 가입한 뒤로 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됐어. 우리랑 같이 술도 안 마시고, 일요일에 우리랑 놀지도 않잖아. 넌 너무 종교적이야.”

그 말이 상처가 됐지만, 그래도 어찌겠는가? 이안은 침례를 받았고 이제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변한 점이 있겠지만, 이안이 아는 한 자신은 더 좋은 쪽으로 변했다. 종교적이라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닐 텐데.

필리핀 라스 피냐스 스테이크에 살고 있는 이안은 열 살 때 침례를 받았다. 선교사들은 이안에게 토론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참된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는 기도했고, 그에 대해 “저는 밝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것이 진리를 증거하는 성신의 느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 이안은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곤 했다. 또 일요일에는 응원단 연습을 하며 학교 스포츠 행사를 위해 응원 지휘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이안은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가족 중에서 교회에 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안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주시고, 의붓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아니면서도 이안을 교회로 데려다 주시고 모임 후에는 데리러 오신다.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할 텐데 왜 교회에 나오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안은 그저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 나가요.”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그의 친구들도 많지요. 이안은 신권을

받는다는데 들뜬 모습이었고, 아버지께 성찬을 전달할 때 입을 수 있는 하얀 와이셔츠를 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안은 복음을 알면서 느낀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 한 분에게 물문경 한 권을 주었고 선교사들과 만나 보라고 권유했다. 급우들 몇몇은 이안의 새로운 표준을 존중해 주었고 복음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안을 놀리기도 했다.

이안은 그저 할 수 있는 한 힘껏 계명을 지킬 뿐이다.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쁨도 느끼고 또한 박해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안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권고한다. “신앙을 지키세요. 경전을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복음대로 생활하겠다고 결심하세요. 더 훌륭하게 변하세요.”

바로 이것이 교회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더 훌륭한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

사진 촬영: 에드윈 퍼드코리노



신앙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속죄자이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심이사도 정원희, “거듭남”,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78쪽



모델



함께 일하는 주님의 종들을 향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보조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일부 선교사들이 몇몇 특권을 남용하고 그분의 친절을 이용하려 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좀 더 효력 있는 엄격한 규칙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선교사들의 의도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들이 옳은 일을 택하리라고 믿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모범을 통해 저는 정확한 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조셉 스미스의 권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선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다. 위: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역할 모델이었다. 그가 말씀한 후 백성들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외 교회 지도자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께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필리핀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시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우리 나라의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회원들의 삶을 축복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큰 애정을 쏟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범을 통해 저는 사도들이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개인들 또한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회장이신, 칠십인 정원회의 키스 알 에드워즈 장로님은 교회 사업에 행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드워즈 장로님은 베냐민 왕이 탐 위에서 말씀했을 때 백성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했습니다.(모사이야서 5:2) 에드워즈 장로님을 통해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의도가 순수한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로나이 대장

경전에는 훌륭한 역할 모델이 가득합니다. 모로나이 대장은 제가 개인적인 영웅으로 여기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몰몬은 모로나이에 대해 감탄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몰몬은 모로나이 대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앨마서 48:17) 몰몬은 또한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앨마, 그리고 앨마의 아들들에게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앨마서 48:18)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역할 모델로 삼으십시오.



니파이

경전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의 또 하나의 예로 니파이가 있습니다. 니파이를 통해 저는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리핀을 떠나면서 저는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국에서 주어질 기회들이 미국의 그것들보다 유망하거나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저는 니파이처럼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돈은 부족했고, 기회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 명 모두가 병에 걸려 저축해 놓은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살아온 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일종의 결핵에 걸렸습니다. 아들에게는 비싼 의약품이 필요했으며, 9개월 동안 그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지갑을 열어 보았을 때의 당시 심정을 기억합니다. 아내는 제게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레이먼과 레뮤엘처럼 되어 불평하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쉽사리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귀환 선교사야. 주님을 위해 봉사했지. 우리는 십일조도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 그런데 축복은 어디에 있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활동했고 부름에서 봉사했으며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제 형과 형수가 우리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저는 마침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봉급은 빠듯했고 제가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벌었던 것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몇 년이 흐른 후 아내와 저는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불평은 그만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로 해요.” 그러자 상황이 즉각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 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그 중 최고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와드 감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축복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저는 제가 거쳐 왔던 어려운 시기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기여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한 회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민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런 연민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니파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음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니파이전서 3:15).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을 때 며칠 동안 묶여 손목과 발목이 부어 오른 니파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온종일 그를 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18:16) 저는 그 회원에게 우리 대부분은 니파이처럼 되려면 멀었지만 니파이는 훌륭한 역할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회원에게 답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때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히 길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니파이전서

왼쪽: 모로나이 대장은 참으로 강한 지도자였으며 물문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의 길을 본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아래: 니파이의 모범은 우리에게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궁극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 및 행동은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3:7 참조).

부모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덕성을 갖추신 강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 안에 세우신 견고한 복음의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완벽한 분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 또한 제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시고는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표지를 보신 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사랑했으며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근무하시던 제약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아 출장을 많이 가셔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져서 한 달에 사흘만 집에서 보내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아버지가 오랜 기간 근무했던 전도유망한 직장을 그만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아온 가족 평의회에서 아버지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왜 일을 그만두셨는지 물었고, 아버지의 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벌써 침대에 접어드는데, 침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란다.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라고 말할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한단다.” 아버지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범을 따름

아버지의 그러한 모범을 통해 저는 세월이 흐른 후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컨설팅 회사에 갓 취직했을 때 저를 포함한 직원

여섯 명은 필리핀에서 호주 시드니로 가서 전 세계에서 온 400명의 경영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등석을 타고 여행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을 타고 우리는 초특급 호텔로 갔습니다. 각 방마다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갓 입사한 사원들이 회사에 남기를 바라며 그 회사가 일하기에 좋은 회사임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날 모임이 끝난 후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당 12명이 앉았고, 그 중 10명은 경영자, 2명은 회사에서 우리의 역할 모델이 되어 줄 경영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력을 쌓아 나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사시킨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 함께 일했던 중요한 기업인들, 그리고 그들이 지휘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으며, 저는 그들이 한 일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그러한 기회에 대해 기뻐하던 중,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출장이 잦은 것에 대해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에 거의 못 들어 가시잖아요.” 그러자 파트너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한 지 2년 되었다네.”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파트너도 말했습니다. “나는 5년이 되었지.”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걸. 가족이 흐트러지면 세상적인 성공이 다 무슨 성공이람.” 제 아버지의 모범을 통해 저는 쉽게 가족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주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궁극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주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 및 행동은 우리의 구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 비롯되며, 그 신앙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증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그분의 희생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 각자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따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축복 받을 것입니다.

역할 모델이 필요한 이유

훌륭한 역할 모델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을 위인으로 삼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역할 모델을 택할 때 영원한 것들을 고려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서 좋은 모범을 찾아보고 그러한 모범을 따르십시오. 구주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역할 모델을 신중히 택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기억할 것이며, 그것을 본받는 여러분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채 알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들이 존경하는 역할 모델인 여러분을 기반으로 훌륭한 행동을 본받아 하게 될 것입니다. ■

아버지에게 배운 아홉 가지 교훈

저의 가장 훌륭한 역할 모델 중 한 분은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교훈입니다.

1.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니면 삶의 폭풍을 이겨낼 것이다.
2. 정직하고 곧은 사람이 되라. 자신이 믿는 원리에 충실하고 거짓 없는 깨끗한 삶을 살라.
3. 꿈을 꾸되, 큰 꿈을 꾸라. 의로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 고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라.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를

- 인간으로서 하나가 되게 해 준다.
5. 독서를 많이 하라. 지식이 힘이라면 독서는 그 힘에 이르는 길이다.
6. 열심히 일하라. 일은 축복이다.
7. 아낌없이 베풀라. 무엇을 얼마나 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줄 수 있는 것을 자주 주는 것만이 중요할 따름이다.
8. 건전한 유머를 즐기라. 웃음은 마음을 열어 주고 삶을 즐겁게 해 준다.
9. 음악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라. 합당한 음악은 영혼에 속삭여 준다.



이제 다시는 가정 복음 교육 하러 가지 않을 거예요!

내 열다섯 살짜리 아들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즉 친구들과, 스케이트보드, 자동차, 그리고 운전 연습 등의 일들로 늘 바쁘고 활기차게 산다. 그러나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자신의 책임에는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시간 낭비예요. 저는 이제 다시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가지 않을 거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거라고 제 고문에게 전화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가 워드 연락처 목록에서 신권 고문의 이름을 찾기도 전에 전화 벨이 울렸다. 새로 지명된 그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인 번드 서코우

형제님이었다. 서코우 형제는 투박한 독일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토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토비 형제가 이제 제 새로운 동반자네요. 지금 몇 가정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요. 좀 있다 봅시다.”

서코우 형제는 아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든지, 아니면 토비가 놀라 잠시 말을 잊지 못한 것을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게 어느 쪽이든, 심 분이 지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고, 토비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 기운찬 형제님은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자동차

토 비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 기운찬 형제님은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자동차 키 한 묶음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키 한 묶음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형제님이 토비죠? 만나서 반가워요. 토비, 오늘은 안식일인데, 제가 하는 일이 자동차 시운전이예요. 운전이 제 직업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제가 운전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좀 도와줄래요? 운전 면허 있어요? 우리가 가정 복음 교육을 하기로 한 곳까지 운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코우 형제가 그 주에 시운전을 하기로 한 신형 스포츠카를 본 토비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멋진 차를 타 볼 수 있는 가정 복음 교육의 기회를 거의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가정 복음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토비는 서코우 형제에게 새

컴퓨터 장비를 보여주었고, 곧 최신 기술의 경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코우 형제는 떠나면서 말했다. “우리 가정 복음 교육을 다음 주 일요일에 다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토비?”

토비의 어린 남동생이 불쑥 끼어들었다. “저도 가정 복음 교사 하면 안되나요?”

토비는 서코우 형제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할 때가 되면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몇 달 후, 가정 복음은 이제 단순히 멋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서코우 형제는 진실한 친구가 되었으며, 토비는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서코우 형제와 아내 바바라는 후에 독일로 돌아갔다. 우리 스테이크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다. 배터리가 다 된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 다른 차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점프 스타트를 통해 시동을 걸듯이,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한 간증을 갖기 위해 점프 스타트가 필요했던 한 청소년에게 보여준 서코우 형제의 강력한 사랑의 모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크리스틴 프랜کم,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랫동안 감춰졌던 보물

얼마 전, 신권회 개회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내 가정 복음 동반자가 와드 습득물 바구니에 내 경전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러나 내 옆에는 아내가 준 새 경전이 놓여 있었다. 그전에 쓰던 경전은 집 거실 의자 옆에 있는 바구니 안에 놓아 두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이 무슨 애긴가 했다. “미들 네임

이니셜이 뭐죠?” 동반자가 물었다.

“R 인데요.”

“경전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내가 그 경전을 가져와 볼게요.”

동반자는 잠시 후 걸 표지에 희미하게 금색으로 내 이름이 쓰인 성경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성경을 금방 알아봤다. 검은색 커버에 달린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지만, 지퍼를 열고 성경 맨 앞장을 펴자 거기에는 내 아버지가 손수 쓰신 글이 있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내 열두 번째 생일날 주셨던 성경이었다.

나는 지금 애리조나 주에 살고 있는데, 그 성경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내가 유타 주에 살고 있으면서 선교 사업을 준비하던 때였다. 선교 사업을 나가면서 나는 세미나리에 사용하던 경전 세트를 들고 갔고, 이 성경은 집에 놔두었다. 이 오래된 성경이 30년이란 세월에 걸쳐 유타 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부터이고 애리조나의 와드 건물까지 오게 된 경로를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경전을 열심히 연구하시던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도와주셨다. 그 성경에 아버지가 써 주신 글의 한 부분은 내가 아론 신권을 받으려 할 때 훌륭한 권고가 되어 주었다.

“데이빗, 이번 열두 살 생일에 너는 집사로서 아론 신권을 받고, 네 이름을 따온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그가 현명하게 행동했을 때, 주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단다.

“너도 그렇게 하거라. 네가 현명하게 행동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분은 너를 축복해 주시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너를 부르실 거다.

“굳건하고 충실하거라 아들아. 이 책을 부지런히 연구해라, 그러면 이 책이 네게 힘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은 30년 전이나 다름 없이 지금도 내게 큰 감명을 준다. 아니, 오히려 지금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간을 초월한 아버지의 권고가 담긴 내 첫 번째 성경 선물을 다시 찾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데이비드 알 헵크스, 미국 애리조나 주

구주를 기억했어요

예전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끼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교회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지만 내 문제들을 극복할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종종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특히 밤에 더 그랬다. 행복하지 않았다.

특히나 더 괴로웠던 어느 날, 선교부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싶었다. 또 어떤 날은 제일회장단의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내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분께 편지를 쓸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내가 찾던 답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던 중에, 나는 콜롬비아 쿠쿠타 지역의 지방부 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선교부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필요한 해답을 찾았다. 카날스 회장님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경험을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내게 가까이 오라’(교리와 성약 88:63 참조)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잊고 있었다. 해결책을 찾는 데 급급한 나머지 나는 고난 가운데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권능을 지닌 이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내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구주의 발치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아직도 내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힘과 위안을 받았다. 또한 의롭게 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봉사한다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면 서 나는 화평을 주고 나의 기도 응답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잊어버렸다.

그분께서 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거나 적어도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아이리스 아드리아나 릴 캐스틸라, 콜롬비아

기도의 열쇠

최 근에 나는 전임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고, 축복을 받아 직장을 잡고 내 대학 학자금을 위해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효과적으로 일함으로써 내 고용주가 다른 귀환 선교사들도 고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하는 일은 단순했다. 건설 기술 회사에서 그때 그때 주어지는 잡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 일들 중에는 종종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실험들도 있었다. 하루는 몇몇 공사장에서 건축 자재 견본들을 수거해 와서 실험실로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낡은 트럭 한 대가 주어졌고, 그 트럭을 타고 나는 출발했다.

첫 번째 공사장에 도착해서 감독관에게 인사를 하고 콘크리트와 철근 견본을 받았다. 그것들을 트럭에 싣고 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트럭 열쇠를 찾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열쇠가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트럭 주위도 찾아보았지만 열쇠는 아무데도 없었다. 문득 공사장 안을 돌아다닐 때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사장에서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며 찾아보는 동안, 나는 마음 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여전히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트럭을 더 샅샅이 찾아보면서 바닥에 깔린 매트 밑도 확인해 보았다. 열쇠는 없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싶고 이렇게 첫 번째 공사장에서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고는 기도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 번 찾아보기 시작했다. 트럭 밑을 보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변 바닥을 슬쩍 훑어보았다. 여전히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공사장을 다시 한 번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시 트럭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열쇠를 찾고 있었다. 트럭 열쇠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쉬운 일 하나도 끝내지 못했다고 새로운 고용주에게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다시 한 번 조용히 기도를 읊조렸는데, 트럭 밑을 보라는 느낌이 또 들었다. 다시 한 번 아래를 힐끔 보았는데, 역시 열쇠가 보이지 않자 나는 그 느낌을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럭에서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밑을 한번 보기로 했다.

갑자기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트럭에서 나오면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열쇠는 내가 처음 두 번 트럭 밑을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트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영의 속삭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영이 얼마나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내게 임하는지를 느꼈다. “주 살아계시고 날 사랑한다는”(“주 살아계시고”, 찬송가, 188장)이라고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단순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

마크 번스, 미국 유타 주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 가르침 제언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10쪽: 가족들에게 기사를 요약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성스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가족들과 의견을 나눈다. 아침에 영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의 권고를 실행해 보도록 권유한다. 한 주 뒤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눈다.

“내부로부터의 위험을 경계함,” 22쪽:

가족들에게 장난감 블록을 준다. 기사를 설명하는 동안 가족들이 블록으로 벽을 쌓도록 하고, 그 벽이 가족을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보호벽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적이 사용할지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적의 침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토론한다. “우리의 가족을

강화함” 부분을 읽고 엘 톰 페리 장로의 인용문으로 끝을 맺는다.

“너무 종교적이라고?,” 37쪽: 기사를 요약하고, 자신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족들이 생각해 보게 한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을

읽고, 이안의 권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교적인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토론한다.

“역할 모델,” 38쪽: 시작하면서 먼저 가족들에게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의 리스트를 적어보거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벤슨 이 미살루차 장로의 기사에서 역할 모델의 예를 설명하고, 역할 모델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들을 토론한다. 기사의 마지막 세 문단을 읽으면서 마무리한다.

“제이슨의 대피,” 친10쪽: 가족들과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하면서 집 밖의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호루라기를 불거나 벨을 울리면서 비상 상황임을 나타낸다) 그런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성신, 22
가르침, 2	성전, 친8, 친13
가정 복음, 44	순종, 22
가족, 2, 8, 22, 26, 37, 38, 친8, 친13, 친14	안식일, 37
건강, 26	역경, 26, 46
경전 공부, 10, 16, 25, 45	영적인 힘, 10
계시, 2, 10, 16, 34	예수 그리스도, 10 46
기도, 2, 10, 16, 34, 46, 47	우선 순위, 8, 16, 25, 38
도움, 26, 32	우울증, 26
매체, 15, 16	우정, 32, 37
모범, 8, 38, 44, 친2, 친4	의식, 친8
모성애, 26	일, 친6
방문 교육, 25	조셉 스미스, 친6
배움, 8, 25	준비, 2, 34, 친10
보호, 2, 22, 친10	지도자, 38, 46
봉사, 37, 친2, 친4, 친6	지혜의 말씀, 32, 37
부모, 2, 38, 45	초등학교, 친8
선교 사업, 38, 친2	축복사의 축복, 34
	행복, 친2

뒤 비상벨이 대피해야 할 시기를 아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물어본다. 기사를 읽는다. 가족들이 마주칠 수 있는 영적인 위험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질문한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인용문을 읽고 대피해야 할 시기를 아는 데 신앙과 성신이 어떻게 도움이 될 지를 토론한다.

용서에 대한 교훈

우 리 가족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의 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정의 밤은 재미있는 활동이나 재치 넘치는 실물 공과, 또는 훌륭한 음식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의 밤은 열일곱 살 된 우리 아들 필딩이 준비했던 용서에 대한 공과와, 이를 통해 온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경험과 관계가 있었다.

공과를 마친 후, 우리 가족은 한 사람씩 서로에 대해 좋아하는 점과 조금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각자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함께 도왔다. 우리는 함께 울었고, 서로에 대한 용서를 구했으며, 더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가정의 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정의 밤을 통해 자녀들이 마음을 더 자유롭게 터놓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참 좋다.

카를로스 & 제니 코메나 구즈만, 페루, 이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에 관한 설명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자립에 관해 훈련 받는 스테이크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라는 제목의 새로운 DVD가 DVD 대본 및 **주님의 방법**으로 **베플**: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도서 개

요라는 새로운 소책자와 함께 전 세계의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에게 발송되고 있다. 이는 교회의 복지 원리를 오늘날의 과제들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감독단과 지부 회장, 대제사 그룹 지도자, 장르 정원회 회장 및 상호부조회 회장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감리 감독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에 따르면, 이 훈련은 와드와 스테이크의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복지의 기본 원리들을 검토하고 배우며 궁핍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할 방안을 마련해 준다.

그는 “이 훈련은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이 검약하는 생활과 자립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교회 회원들을 가르치고 장려하기 위하여 더 잘 준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DVD

DVD에는 네 명의 연사, 즉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감리 감독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및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백 자매가 출연한다. 각 연사는 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주님의 프로그램인지와 행하는 신앙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 복지와 관련된 감독과 지부 회장의 책임,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상호부조회 회장의 책임 등 복지에 관한 여러 관점에 초점을 둔다.

몬슨 회장은 사르밧의 과부가 가뭄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경전 이야기를 나눈다.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죽기 전에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음식을 구하며 약속하기를 그녀가 자신과 음식을 나눈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가족에게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녀는 엘리야와 음식을 나누었고 그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복지 계획에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지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감 받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헤일즈 장로는 자립과 검약하는 생활을 정의한다. 그는 “자립이란 자신의 영적 및 현세적인 복지에 대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검약하는 생활이란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쁘게 생활하고 삶의 기록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뜻하지 않은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헤일즈 장로는 말한다.

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지 훈련 DVD와 관련 자료들이 전 세계의 스테이크 및 지방부로 발송되고 있다.

봉사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며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버튼 감독은 신권 지도자들을 위해 오랜 경험으로 검증된 복지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들을 제시했다. 첫째, 가난한 자를 찾아낸다. 둘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셋째, 생활 수준이 아닌 생계를 유지한다. 넷째, 현금에 앞서 물품을 제공한다. 다섯째, 일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벡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조직이 성장과 번영의 시기이나 전쟁, 기근, 전염병, 불황의 시기이나 해야 할 일을 성취해 왔음을 상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개척자 산과 그림이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한 자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한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이 회원들의 필요사항을 평가하는 일을 도와 원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벡 자매는 말한다. 또한 그녀는 이 일이 “신성한 사업이며, 상호부조회 회장은 신성한 부름을 받았기에, 신성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인다.

추가 자료

DVD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도서 개요** 소책자는 과거에 교회가 복지와 자립에 관한 원리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해 오던 34쪽 분량의 지도서를 8쪽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 지도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도서**라 불리며 지도자들이 복지



감리 감독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이 복지에 관한 감독의 책임에 대한 DVD 훈련 중에 감독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관리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얻는 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DVD 대본 및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소책자는 지도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고 보충하는 것이다.

교회는 DVD 대본 및 소책자의 영어판을 2009년 2월에 출시했다. 광둥어, 독일어, 러시아어, 북경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 번역물은 번역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 각 지역으로 배부되고 있으며, 다수는 이미 배부가 완료된 상태이다.

훈련

제일회장단은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들이 훈련 패킷을 받으면 스테이크/지방부 및 와드/지부 지도자들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요청했다. 패킷에 동봉된 서한에는 훈련

모임 순서에 대한 제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52분짜리 DVD 를 시청하거나 전사본을 읽고 배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버튼 감독에 따르면, 이 지도자들이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나갈 때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성스러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주님의 영감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많은 회원들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인해 곤경을 겪지만, 새로운 훈련은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에게 복지에 관한 모든 필요사항에 부합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 훈련은 주님께서 손수 확립하신 검증된 원리들을 보강해 줍니다.”라고 버튼 감독은 말했다.

자료들을 검토한 후, 텔라웨어 주 윌밍턴 스테이크 회장인 더블류 윈 존은 훈련 내용이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의 스테이크 내에서

직장을 잃는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료가 회원들에게 자립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회장은 “그것은 우리가 안내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복지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도록 촉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로즈파크 스테이크 회장인 크레이그 루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핵심 인물, 즉 감독, 상호부조회 회장 및 그 외 신권 지도자들의 책임에 주목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책임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수행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루쉬 회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VD 및 소책자 제작 감독을 도운 교과 과정부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케네스 스멜리는 이 훈련이 신권 지도자들이 원리들을 현 상황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필요사항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의 필요사항과 대공황 때의 필요사항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훈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복지에 관한 모든 필요사항에 부합할 방법이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그것은 주님께서 손수 확립하신 검증된 원리를 보강해 줍니다. 또한 유효성이 증명된 원리들에 대해 오늘날에 맞는 해석을 제공하여 신권 지도자들이 오늘날 회원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돕습니다.”라고 스멜리 형제는 말했다. ■

브라질 선교부 개편

7월에 100여 개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이 바뀔과 더불어, 교회는 브라질에 있는 세 개 선교부를 개편했다.

새로운 브라질 테레지나 선교부가 브라질 벨렘 및 브라질 포르탈레자 선교부의 일부 지역으로부터 조직되었다.

브라질 벨루오리존테 및 브라질 벨루오리존테 동 선교부는 브라질 벨루오리존테 선교부로 통합되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북 선교

본부는 비토리아로 이전되었으며, 선교부 명칭은 브라질 비토리아 선교부로 변경되었다.

테레지나 선교부의 조직과 벨루오리존테 및 벨루오리존테 동 선교부의 통합으로, 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포함하여 2억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브라질에는 예전대로 27개 선교부가 있게 되었다. ■

세 개의 언어가 새로이 추가된 FamilySearch

색인 작업

FamilySearch가 FamilySearchIndexing.org에 세 개 언어 인터페이스, 즉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를 추가했다. 러시아어와 이탈리아어는 이미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며 포르투갈어는 2009년 중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FamilySearch는 현재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및 프랑스어로 프로젝트를 색인화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중 두 가지는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수집된 기록과, 1784년부터 1924년까지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수집된 침례 기록이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 프로젝트는 디지털화된 역사적 문서에 나와 있는 가족 역사 정보를 찾아 검색 가능한 색인으로 정리하는 데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한다. 조상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색인에 접속할 수 있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 자원 봉사자들은 2008년에 1억1천5백만 명 이상의 이름을 색인화했다.

FamilySearch 공보 책임자인 폴 나타는 색인 작업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자원 봉사자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FamilySearchIndexing.org에 방문하여 자원 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2009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은 칠십인 제일 또는 제이 정원회 회원들이다.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에 따라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제일회장단은 또한 남미 북 지역과 남미 서 지역의 통합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역은 남미 북서 지역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전 지역 보조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 북미 남서



스티븐 이 스노우
2. 유타 북
3.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4. 유타 남



월터 에프 곤잘레스
5. 북미 남동



앨 휘트니 클레이튼
6. 북미 북서
7. 북미 서



제이 이 쟈슨
8. 북미 북동



도널드 엘 홀스트롬
9. 아이다호
10. 북미 중앙



11. 멕시코



벤자민 디 호오스
제1보좌



다니엘 엠 존슨
회장



타비아노 데노리오
제2보좌

12. 중미



엔리케 알 갈라벨라
제1보좌



돈 알 클라크
회장



제임스 비 마르티노
제2보좌

13. 카리브



게리 제이 코울런
제1보좌



프란시스조 제이 비나스
회장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제2보좌

14. 남미 북서



에두아르도 가버렛
제1보좌



마커스 비 내쉬
회장



라파엘 이 피노
제2보좌

15. 브라질



스탠리 지 엘리스
제1보좌



올리세스 소아레스
회장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제2보좌

16. 칠레



로렌스 이 코브리지
제1보좌



카를로스 에이치 아미도
회장



조지 에프 제블로즈
제2보좌

17. 남미 남



클라우디오 디 지빅
제1보좌



세인 엠 보웬
회장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키디디스
제2보좌

18. 유럽



제럴드 코세 제1보좌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회장
호세 에이 테제이라 제2보좌

19. 유럽 동



케빈 더블류 피어슨 제1보좌
볼프강 에이치 풀 회장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저 제2보좌

20. 중동/아프리카 북



브루스 디 포터
폴 비 파이퍼
본부가 관리함

21. 아프리카 서



크리스토펴 골든 이세 제1보좌
크레이그 에이 커튼 회장
존 비 딕슨 제2보좌

22. 아프리카 남동



에프 마이클 왓슨 제1보좌
블 이 걸리커 회장
데이비드 지 랜던트 제2보좌

23. 아시아



켄트 디 왓슨 제1보좌
앤소니 디 파킨스 회장
칼 비 프랫 제2보좌

24. 북 아시아



최윤환 제1보좌
게리 이 스티븐슨 회장
코이치 아오야기 제2보좌

25. 필리핀



고원웅 제1보좌
키스 알 에드워즈 회장
마이클 존 유 테 제2보좌

26. 태평양



데드 알 콜리스터 제1보좌
데이비드 에스 맥스터 회장
제임스 제이 해물러 제2보좌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헌납 일시 확정해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이 2009년 8월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에 열릴 여섯 번의 모임을 통해서 헌납될 예정이다. 헌납식은 2009년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었던 성전 일반 공개 후에 열린다. 성전 의식을 위해서는 2009년 8월 24일 월요일에 문을 열 예정이다.

2009년 4월 7일자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 주님의 집의 헌납과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져올 축복을 고대합니다.”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은 이 지역의 성장으로 인한 과밀 현상을 덜기 위해 올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헌납되는 두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은 1983년 6월 1일에 최초로 헌납되었다.

번째 성전이다. 2009년 3월에 유타 드레이퍼 성전이 헌납되었다. ■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 개보수를 위해 문 닫아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이 개보수를 위해 2009년 7월 1일에 문을 닫을 예정이며, 공사 완료까지는 약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애틀랜타 성전 구역의 거주민들에게 애틀랜타 성전이 문을 닫는 동안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성전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인근 성전 중 일부는 사전에 약속된 경우에만 문을

열기 때문에 참여자와 신권 지도자들은 미리 성전에 연락해야 한다.

또한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성전이 다시 열릴 때를 준비하기 위해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합당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해지십시오.”라고 격려했다.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은 1983년 6월 1일에 최초로 헌납되었다. ■

교회,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응해

진도 6.3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이탈리아 로마 스테이크의 교회 회원들은 이탈리아 적십자사에 음식과 위생 용품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을 조직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는 금식 현금 기금을 이탈리아 라퀼라 및 인근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지역 지도자들은 지진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현세적, 정서적, 의료적, 영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진 위원회를 구성했다.

2009년 4월 6일과 7일에 발생한 지진과 수 차례의 여진으로 인해 최소 281명이 사망했다. 라퀼라, 카스텔누오보, 포기오피센제, 톨미나타르테, 포사, 토티아니, 빌라산탄젤로 인근 도시와 마을들은 사망 소식을 전했다. 라퀼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88킬로미터 떨어진 로마 사람들도 그 지진을 느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속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파편을 파헤쳤으며 그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2만 8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진 발생 두 시간 만에, 지역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안전에 대해 보고했다. 라퀼라에는 25~30명의 활동 회원이 있는 한 개의 지부가 있다. 교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부 회원 중 네 가정이 집을 잃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라퀼라 집회소가 파손되었다.

4월 6일 오전 3시 32분에 발생한 주지진으로 인해 도시 내의 역사적인 건물들도 다수 붕괴되었다.

라퀼라에 소재한 주요 병원은 지진 후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대피조치가 내려졌다. 도시 내 전화선과 전력 공급도 중단되었다. 일련의 여진 중에는 진도 5.6에 이른 것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몇몇 교량과 도로들은 예방 차원에서 폐쇄되었다. ■

인도네시아에서 댐 붕괴돼

2009년 3월 27일, 식민지 시대의 댐이 붕괴되면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남서쪽 외곽으로 방출된 흙탕물 장벽으로 인해 최소한 97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아직까지 실종상태에 있다.

1933년에 네덜란드 식민지 개척자들이 축조한 16미터 높이의 이 흙댐은 인공호수인 신투 긴통호가 폭우로 인해 범람한 뒤 붕괴되었다. 동이 트기 전, 쓰나미 규모의 파도가 저지대의 주택가를 휩쓸고 지나가 가옥 300개 이상이 무너지고 200여 개가 침수되었다.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 건물은 없었다.

군인, 경찰 및 자원 봉사자들은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진흙과 잔해를 파헤치는 작업을 도왔다. 자카르타에

있는 두 개 지부의 교회 회원들은 홍수 피해자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무함마디야 이슬람 단체와 협력했다. ■

범람한 강, 미국과 캐나다에 홍수 일으켜

미국 노스다코타 주 파고에 112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홍수로 인해 두 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2009년 3월 27일에는 레드강의 범람으로 150 가정이 대피했다. 미 정부는 노스다코타 주 전 지역과 미국 미네소타 주 일곱 개 군을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다.

파고에서는 홍수로 인해 회원 가옥 한 채가 파손되었고, 회원 중 약 17가족이 사전에 대피했다. 선교사들은 모두 무사했다. 범람한 물로 인해 손상된 교회 건물이나 선교사 숙소는 없었다.

자원 봉사자들은 위험 지역을 보호하는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 250만 개의 모래 자루를 채웠다. 회원과 선교사들도 이러한 자원 봉사 대열에 참여했다. 이 지역의 여러 학교와 사업체들은 학생과 직원들이 모래 자루 쌓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휴교 및 휴업했다.

캐나다 매니토바 주 일부 지역은 범람한 물이 강 하류에 위치한 그들 지역으로 향하자 지역 사회를 미리 준비시켰다. 노스다코타 주와 미네소타 주 경계를 따라 흐르는 레드강은 캐나다 매니토바 주 북쪽으로 이어지며 위니펙호로 흘러든다.

홍수는 3월 중순, 쌓인 눈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전 폭풍우로 인해 눈덩이가 녹으면서 시작되었다. 강은 불어난 물과 얼음 덩어리들이 강의 흐름을 막으면서 범람하게 되었다. 홍수는 제방을 침식시키고 파고의 일부를 휩쓸었다. 한 때 레드강의 수위는 홍수 위험 수위보다 6.8미터나 높은 12미터까지 치솟았다.

지역의 교회 회원들은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계속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

청년 성인의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리아호나는 2010년부터 특히 청년 성인들을 위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실을 예정입니다. 강렬하고 영감적인 기사들을 모으기 위해, 청년 성인 여러분께 다양한 복음 원리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Magazine

50 E. North Temple Stree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
USA

각 원고에 여러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워드/스테이크(혹은 지부/지방부)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동회 지도자들이
2009년 8월호 리아호나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8쪽과 친9쪽에 있는
“성전-언젠가 같거야”를 참조한다.

1.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
사진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에게 성전을
본 적이 있거나 성전에 가본 적이 있으면
손을 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성전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칠판 한 쪽에 “성전이란 무엇인가?”라고
적고, 다른 한 쪽에 “성전에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라고
적는다.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다같이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의 1절과 2절을 부르는
동안, 한 그룹에게는 성전이
무엇인지(하나님 집, 사랑이 넘치는 곳,
거룩한 곳) 들어보라고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어보게 한다.(성령을
느낌, 주님께 기도함, 주님과 성약을
맺음, 순종을 약속함, 인봉되는 곳) 각
절을 부른 후 그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께서는 성전이 어떠한 집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다같이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을 읽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경청하라고 한다. 칠판에
“_____의 집”이라고 일곱 번 쓴다.
어린이들에게 경전에 나온 단어들로

빈칸을 채우게 도와 달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성전 추천서 접견에 관해
간략히 말씀해 달라고 한다.

2. **나는 지금 성전에 갈 준비를 할
것이다.** 미리 각각의 종이에 입, 눈, 귀,
손, 발 그림을 간략히 그린다. 다음
문구를 칠판에 적는다. “하나님 집”,
“사랑이 넘치는 곳”, “거룩한 곳”.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 한
어린이에게 이 세 문구를 읽어 달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문구들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속삭이게 한다.(성전) 모든
성전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음을 가르친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 안에서 행해진 일은
거룩하므로, 우리는 만 12세가 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러분 “나 어린 동안 준비해 거룩한
나의 의무”(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를 노래하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성전에 갈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들어 보라고
한다. (어린 동안) “성전에 갈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그 소절을 부르자고 한다. 반주자가 “나
성전 보고 싶어”를 연주하는 동안, 입
그림을 옆으로 전달시킨다. 음악이
멈추면, 입 그림을 들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가 성전에 가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말하게 한다. 예: 기도한다, 친절하
말을 한다, 진실을 말한다,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 등.(그 어린이가 대답하기
힘들어하면 다른 어린이들이 대답하게
한다.) 그가 대답하면 다른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말해 달라고 한다. 입,
귀, 손, 발 그림도 이같이 한다.

3. **노래 발표:** “가족은 영원해”(어린이
노래책, 98쪽) 후렴구 각 소절에 나오는
단어들의 첫 글자만 적혀 있는 낱말
카드들을 순서 없이 붙여서 후렴구를
먼저 가르친다.(첫 소절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즉) “하계”가 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후렴구를 부르는
동안 잘 듣고, 소절들을 올바른 순서로
놓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한다. 한 번
이상 불러줘야 할 수도 있다. 소절들을
올바른 순서로 놓으면 어린이들에게
후렴구를 부르게 한다. 1, 2절에 있는 각
소절의 핵심 단어를 낱말 카드에 적어서
1절과 2절을 가르친다. 한 어린이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아이가 낱말
카드를 볼 수 없도록 그의 머리 위로
카드를 든다. 어린이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부르지 않을 단어를 기억하기
위한 카드라고 말한다. 초동회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동안 그 아이에게
어떤 단어가 빠졌는지 들어 보라고 한다.
그가 단어를 맞히면 초동회 어린이들에게
핵심 단어와 함께 그 소절을 부르게
한다. 다른 소절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전 곡을 부른다. ■

